

보 물

도쿄조선제 4 초중급학교 교원
곽정아

그곳들은 모두
여기 학교와 너무도 지척이건만
만날수가 없는
애가 타도록 보고픈 학생들의 얼굴

아직은 함께 교실에 앉아
우리 말 공부도 못해보았지
나란히 앉아
점심시간의 즐거운 한때도 모르고

아니 글썄
담임선생님과 담당학생 된지
함께 보낸 시간 오직 하루

가슴조이며 기다린
학생들 과제를 받으러 학교 온 날
비루스감염우려때문에
내미는 손과 손에
그저 과제를 쥐여주기만 하는데
-선생님, 보고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동무들을 보고싶습니다!

내 팔 잡아당기는 어여쁜 모습
발버둥치며 말하는 애원에 찬 목소리
학교에 오고픈 아이들의 진심어린
나를 바라보는 맑은 눈동자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떠오르는 학생들모습이건만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보물이었음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요즈음

그래서 나는

오늘도 펜을 든다

컴퓨터와 마주앉는다

땡땡 종소리 울리는 이 학교에서

평범한 하루하루 웃음속에 보내면서

하나, 둘, 셋, 넷... 삶의 보물을 안아볼

행복한 그날을 그려보면서